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여러분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했던 적이 있나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 성적,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도 그런 시간을 오래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마침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나는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라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간절하지만,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내 것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좋은 친구, 건강, 재능, 그리고 우리의 꿈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건 내 거야”라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며 살까요?”라고 물어야 합니다. 믿음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얻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 마음속의 고민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감사하고, 한나처럼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네,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다 같이

말씀봉독 사무엘상 1:19~28절 다 같이

설교 기억하시고 맡기게 하시는 하나님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눈물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꿈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응답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1.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 사무엘을 얻었을 때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였나요?
2.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가운데 무엇을 “내 것”처럼 붙들고 있나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